

강진군보건소 “찾아가는 한방 이동진료로 건강지켜요”

칠량면·대구면·도암면 등 6개 한의약 취약지역 순회

공중보건한의사·간호사 직접 방문 한방 진료·약제 처방

강진군보건소는 2월부터 11월까지 칠량면, 대구면, 도암면 등 6개 한의약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구성해 한의약건강관리 한방진료사업을 전개한다. 건강관리가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경로당으로 공중보건한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일대일 한방 진료와 약제를 처방

한다. 한방진료 외에 혈압, 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을 진행하며, 진료 대기 시간을 이용해 심뇌혈관질환 예방법, 만성질환 예방 운동법, 영양교육 등도 함께 제공한다. 필요시 파스 등 통증 완화 의료용품 등도 지원한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의료적 접근이 어려워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앞으로 한의약 건강관리 한방진료사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진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군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4월부터 강진군보건소에서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을 활용한 ‘신중년 다이어트 건강교실’이 열릴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61-430-5265)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소통 행정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 본격 시작

내일부터 17일까지...올해 군정계획 보고와 질문·답변, 사업장·취약계층 방문 등

김희수 진도군수가 ‘2023년 군민과의 대화’로 소통 행정 행보에 나섰다.

6일 진도군에 따르면 올해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지역민들과 소통 행정 실천 차원에서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7개 읍면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군민과의 대화’는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한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한다.

또 올해 군정 운영 방향과 업무 계획에 대한 군민 이해와 협력 기반 조성 등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군민과의 대화, 주요 사업장과 취약계층 방문 등으로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렴된 의견은 담당 부서별로 필요성, 시급성, 시행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 공감대와 군정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성과와 올해 군정운영 방향, 주요 사업 추진계획 등을 군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군민이 주인인 살기좋은 진도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민과의 대화는 ▲진도읍(8일) ▲군내면(9일) ▲고군면(13일) ▲의신면(14일) ▲임회면(15일) ▲지산면(16일) ▲조도면(17일) 등의 순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진도=조상용기자

해남군 “공모사업으로 예산확보 답을 찾아라”

해남군이 지방재정 확충과 군정 현안과제 해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2023년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해남군 공모사업 실무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함께 2023년 정부예산안 분석 및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발표 등의 실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남군은 지방소멸위기와 고령화사회 등의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모를 통한 사

업 예산을 확보와 현안 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시작한 추세이지만 해남군은 2020년 공모사업TF팀을 신설,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해 왔다.

해남군 공모사업 선정은 최근 3년간 총 360건, 총사업비 4,65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농촌협약,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130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591억원을 확보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 수산물,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라오스 비엔티안 폭콕 메가마트에서 판촉 행사 성료



완도군은 지난 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완도 수산물 판촉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판촉전은 비엔티안 초대형 유통 체인

폭콕 메가마트 내에 위치한 완도군 홍보관 앞에서 완도 소재 기업 대표자들이 직접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선보였다.

판촉전은 지난해 11월 라오스 시장 개척단

의 첫 과전 후속 조치로 지난날 1월 2일에는 전북 절편과 해조 국수, 전복 차우더, 모듬 해초, 김, 미역 등 총 47개 품목, 약 5천만 원의 물량을 선적했고, 현지에서 제품 도착과 동시에 판촉 행사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군은 이번 판촉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는 6월 라오스 현지에서 ‘완도 수산물 페스티벌’ 개최를 논의 중이다. ‘완도 수산물 페스티벌’에서는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 쿠킹 쇼, 시연·시식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폭콕 메가마트와 코트라 비엔티안 무역관과 협업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라오스를 시작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 베트남 등에서 연이어 판촉전을 개최할 예정이다”면서 “완도 특산물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의 인기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홍보관 구축, 신제품 개발, 판촉 행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폭콕메가 마트는 약 4천3백 평 규모로 1호점을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 지난 1월 말 오픈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 경로당 운동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장흥군은 지난 2일 경로당 운동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마을에 민간 운동지도자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건강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 운동지도자는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한 장흥군의 대표적인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이다.

운영 첫해인 2005년 경로당 4개를 시작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에는 88개 소로 운영중이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